

# 안철수 광주에서 사실상 대권행보

## 박원순 면담후 5·18묘지 찾아... 호남구에 시발점 주목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4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등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다.

안 원장은 지난 11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확정 뒤 며칠 이내에 출마 여부에 대해 밝히겠다고 했지만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만남 뒤 곧바로 광주를 방문해 사실상 대선 주자와 마찬가지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 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사전 예고 없이 찾아 참배하고 영령들의 묘를 둘러본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야권의 전통적인 지지세력의 근거지이자 민주화의 성지에서 명실상부한 법아권 유력 주자임을 각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 5·18 민주묘지는 여야 대권주자들의

본격 대선 행보는 물론 호남 구의 시발점으로 주목받는 곳이다.

호남은 2002년 대선 경선 당시 이인재 후보에게 뒤지던 노무현 후보를 밀어주는 등 주요 고비 때마다 전략적인 선택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방문은 대선 출마를 앞두고 호남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도 여겨진다.

안 원장은 현재 광주·전남 등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누르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상황이다.

전날 박 시장과의 회동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정치적인 얘기는 일부러라도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출마와 관련한 모습의 대화가 오갔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 시장이 시민사회의 '대부'라는

에서 안 원장이 박 시장을 만난 것 자체가 시민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신호를 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안 원장이 광주를 방문한 것은 민주당의 후보 확정 임박했고, 경선 1위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가 경선 컨센서스 효과로 지지율이 부상한 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후보의 부상이 자신의 지지를 하락과 맞물리면서 국민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행보를 통해 분위기가 반전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수도 있다.

앞으로도 의미있는 행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언론 노출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안 원장이 종전처럼 이날 광주 방문의 경우 외부에 포착되기 쉬운 상황임에도 비밀리에 진행한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박원순 시장 방문의 경우에도 회동을 마친 뒤에 언론에 통보하는 등 그동안 안 원장 측은 안 원장의 현장 방문 등의 일정에 대해 지나치게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안 원장 측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행보에 대해 대권행보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민영 대변인은 "안 원장은 오래전부터 5·18 묘역을 방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혼자서 조용하게 다녀오고 싶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의 의견을 듣는 중이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된 이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조국·박원순 野 단일화 중재 관심

## 조국 "文-安 담판이 감동있는 단일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후보단일화 가고 역할을 맡은 인물들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두 사람의 단일화가 법아권의 최고 과제라는 점에서 양측의 신뢰와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역량 있는 중재자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권 밖에 포진하며 민주당과 안철수 원장 모두에게 신뢰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단일화 중재 역할에 적임자로 꼽힌다.

조 교수는 지난 1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는 전제 아래 "양쪽이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일이 없도록 분위기를 만든다거나 제가 직접 나

서 본다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역할을 자임했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담판을 통해 한쪽이 양보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정말 감동 있는 단일화의 모습이 될 것이고, 또 승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안 원장을 만난 박원순 서울시장도 후보단일화의 유력한 연결고리로 관측되고 있다. 박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시민사회 '대부'이자 지난해 안 원장으로부터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양보 받는 등 안 원장과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 원장의 출마를 촉구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세웅 신부 등

법아권 원로들도 후보단일화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백 명예교수 등은 지난달 안 원장과 만나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안철수 캠프와 소통에 나서고 있는 송호창 의원 등이 후보단일화의 매신저로 꼽히고 있다. 지난 4·11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야권연대 성사시킨 박선숙 전 의원의 역할도 주목된다.

신계륜, 이인영 등 민권련 소속 의원들은 여러 경선 주자들의 러브콜 속에서도 후보단일화의 고리 역할을 염두에 두고 중립 지대에 남아있다.

김학길 최고위원 등 비노 진영 인사들과 김기식 의원 등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도 역할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 14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 추모탑에 헌화·분향하고 있다. 오른쪽 아래는 안 원장이 방명록에 남긴 글. (안철수측 제공)

## "안랩 무료백신 배포 기부행위 아니다"

###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안랩(옛 안철수연구소)의 컴퓨터 바이러스 무료 백신 배포에 대해 "기부 행위위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안랩의 무료 백신 배포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지난 14일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안랩 이사회 이사장은 야권 유력주자로 다음 주 대선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기부에 해당하려면 기부받은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한다"면서 "오래전부터 누구나 무료로 백신을 받아왔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정봉주 전 의원 가석방대상 포함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복역 중인 민주통합당 정봉주(52) 전 의원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의 항 부처장은 이날 오후 정 전 의원의 트 위터에 "정 의원이 가석방 대상자가 됐다. 오늘(14일) 신청서가 홍성교도소에서 법무부로 접수된다고 한다. 이제 법무부 가석방 심사만 남았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 전 의원의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정 전 의원은 지난 6일로 법무부 가석방 심사 대상 기준 인 형기의 70%를 복역했다. /연합뉴스

## 朴 45.4% vs 安 45.1%

### 안철수 출마 예고후 지지율 반등 리얼미터 12~13일 1500명 조사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 11일 민주통합당 후보 확정 후 대권 관련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이후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2~13일 이틀간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를 실시해 14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양자구도에서 안 원장은

45.1%의 지지율을 기록, 박 후보(45.4%)를 0.3% 포인트 차로 바짝 따라붙었다.

이달 들어 계속 하락세를 보여온 안 원장의 지지율이 반등으로 돌아선 것은 역사적인 논란으로 박 후보의 지지율이 다소 하락한데 그간 불확실했던 안 원장의 대선 출마가 좀 더 명확해지면서 야권 성장 유권자들이 지지를 보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박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는 박 후보가 46.1%의 지지율로, 문 후보(42.7%)를 앞섰지만 내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문 후보는 지난 11~12일 조사 때의 42.2%에서 다소 오른 반면, 박 후보는 48.0%에서 1.9% 포인트 떨어지자 두 후보간 격차도 좁혀졌다.

다자구도에서는 안 원장이 25.9%를 기록, 지난 11~12일 조사 때의

23.3%보다 2.6% 포인트 올라 박 후보(39.7%)와의 격차를 조금 좁혔다. 문 후보는 20.3%에서 18.9%로 다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야권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안 원장은 38.1%의 지지를 얻어 문 후보(40.4%)와의 격차를 좁혔다. 직전 11~12일 조사 때만 해도 안 원장은 33.9%로 문 후보(43.7%)에 9.8% 포인트 뒤졌었다.

/연합뉴스

## 中, 50개 도시서 8만명 反日시위 최대 규모... 일부지역 통제 불능

일본 언론은 15일 중국 50개 도시에서 있었던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에 항의하는 반일 시위에 최대 8만명이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 기업이 시위의 습격을 받아 불타거나 약탈당했다. 이번 반일 시위는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 40년래 최대 규모이다.

NHK방송은 16일 중국 55개 도시

에서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15일 있었으며, 일부 시위가 일본계 기업의 공장에 불을 지르거나, 일본계 유통업체의 상품을 약탈해 큰 피해가 났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베이징의 일본대사관 주변에서 2만명 이상이 시위를 벌이는 등 중국 전역에서 최대 8만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는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 반일 시위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산둥(山東)의 칭다오(靑島)에서는 15일 오후 파나소닉그룹의 전자부품 공장 등 10개 일본 기업 공장에 시위가 난입해 불을 지르고 생산라인을 파괴했다.

도요타자동차도 칭다오 판매 1호점이 방화 피해를 봤으며, 다른 지역 판매점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칭다오의 일부 시위대는 유통업체인 '샤스코 이오지마'를 습격해 엘리베이터를 파괴하고, 창고에 보관돼 있던 상품 24억엔(약 340억원)어치 가운데 절반 정도를 약탈하거나 파손했다.

광둥(廣東)과 쑤저우(蘇州)에서도 일본계 음식점과 백화점이 시위대의 습격을 받았다. /연합뉴스

대출금리:연5.5%~ 대출금액:1,000만원~8,000만원

#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운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리모델링전		1년이자비용
부채현황		4,600,000원
농협중앙회	70,000,000원	2,100,000원
씨티은행	15,000,000원	1,170,000원
지역농협	10,000,000원	1,170,000원
상생카드론	9,000,000원	2,800,000원
대부업체	8,000,000원	11,200,000원
SC저축은행	37,500,000원	4,485,000원
숨론 저축	15,000,000원	7,800,000원
대부업체	20,000,000원	
<b>총부채</b>	<b>180,450,000원</b>	<b>36,035,000원</b>

**리모델링후**

		1년이자비용
부채현황		6,750,000원
농협중앙회	100,000,000원	3,200,000원
씨티은행	40,000,000원	4,500,000원
지역농협	50,000,000원	
<b>총부채</b>	<b>190,050,000원</b>	<b>14,450,000원</b>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 2011-3430067-25-5-00028 주소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공시

판시명	사건번호	죄명	피고인	판결의 요지
판시명	2011고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위반	박광수	전부무죄
	2011고단 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김두전	전부무죄
	2011고단 75	특수징계등	유대환	일부무죄(2010.11.16 각 특수징계외의 점, 2010.11.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2011고단 101	사기	김종선	일부무죄(영양사, 조리사 가산금형처로인한 사기의 점)
	2011고단 428	상해	장철진	전부무죄
	2011고단 761	사기	신병택	전부무죄
	2011고단 921	강제추행	이아름	전부무죄
	2010고단 138	재물손괴	정수영	일부무죄(피해자 김○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2010고단 2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최준호	일부무죄(통급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이용제공의 점)
	2010고단 479	사기 등	박남호	일부무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2010고단 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박승환	일부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주조)에 대한 부분)
	2010고단 507	상해	장근식	전부무죄
	2010고단 861	업무상횡령 등	정성수	일부무죄(업무상 배임의 점)
2010고단 997	업무방해 등	정태욱, 김용성, 차백환, 손홍기	전부무죄	
최지영	2010고단 1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주현식	일부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0고단 1207	청소년보호법위반	오성재	전부무죄
	2009고단 118	사기	오형동	전부무죄
	2009고단 195	절도미수	방국성	전부무죄
	2009고단 291	무고	이영수	전부무죄
	2009고단 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등	박민섭	일부무죄(감금의 점에 대한 점)
	2009고단 676	사기	박성진	일부무죄(피해자 박○에 대한 사기의 점)
	2009고단 723	행정환경관리법위반	진승구	전부무죄
	2009고단 769	절도	강대식	일부무죄(피해자 김○에 대한 절도의 점, 2008. 9. 28. 피해자 유○에 대한 절도의 점,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형사의 점)
	2009고단 876, 2009고단 937, 2009고단 1190			
	2009고단 908	사기미수	전인술	전부무죄
	2009고단 918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신승주	일부무죄(변호사법위반의 점)
	2009고단 1108	사기 등	조정규	일부무죄(성매매알선등행위위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009고단 1108	성매매알선등행위위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정준호	전부무죄	
2009고단 13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 협박)	최정식	일부무죄(협박의 점)	
2009고단 128 (2009검고 5)	공공건조물방화	박민규	전부무죄	
2009고단 14	공갈미수 등	소리식	전부무죄	
노재호	2009고단 50	사기 등	문대환, 신재동	일부무죄(사기의 점)

판시명	사건번호	죄명	피고인	판결의 요지
노재호	(2009고단 186)			
	2009고단 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 협박) 등	박창문	전부무죄
	2009고단 194	변호사법위반	조준남	일부무죄(2008. 5. 23.번호사법위반의 점)
	2009고단 424	무고	신원성	전부무죄
	2009고단 587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포폭행) 등	최철래	일부무죄(명예훼손의 점)
	2009고단 606	사기	백성수	일부무죄(2009. 6. 18. 각 사기의 점)
	2009고단 66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권욱자, 김창기	일부무죄(김○로부터 금품수령의 점)
	2009고단 707 (2010고단 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김유신	일부무죄(사기의 점)
	2009고단 788 (2009고단 1399)	강제집행명달	정용근	전부무죄
	2009고단 839	명예훼손 등	유용수, 문민영	전부무죄, 일부무죄(명예훼손의 점)
	2009고단 939	사기	주용선	전부무죄
	2009고단 1386	변호사법위반	박준남	전부무죄
	2010고단 19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고길수, 박진선	일부무죄(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문봉진	2010고단 551 (2010고단 55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은교	일부무죄
	2010고단 577	사기범죄 등	김 경	일부무죄(업무상횡령 각 범죄들)
	2010고단 859	근로기준법위반	윤운오	일부무죄(김○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0고단 965	의료법위반	조규환	전부무죄
	2010고단 1107	절도	최진희	전부무죄
	2010고단 1266	도포법위반	신진복	전부무죄
	2009고합 1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김성진, 김경수, 이현우	일부무죄(김○에 대한 2009. 7. 26. 06:00경 특수강간치상의 점)
	2009고합 165 (2010고합 9, 2010고합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박광철	일부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1고합 30	일반자등차방화	김철주	일부무죄(일반자등차방화의 점)
	2009고합 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 협박)	유상환	전부무죄
	2009고합 44 (2009고합 85)	사기 등	오재동	전부무죄
	2009고합 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 협박)	전진우	전부무죄
	2009고합 93 (2009고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성년자강간 등)	소이정	전부무죄

위와 같이 공시함. 2012년 9월 17일